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1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바로 여기 조명이 좋고 목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조금 받아도 괜찮아요. 네, 마르코 루비오에게 충분하다면 말이죠. 그것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맞아요 마르코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여기에 있나요 예,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벽에서 튕겨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모두 설정하고 나서 보통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ichard Allen 박사입니다. 제 동료들과 친구들은 저를 알(AI)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는 일련의 강의를 통해 전도서에 담긴 몇 가지 생각을 모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도서는 매혹적인 책입니다. 나는 그것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양한 수업에서 구약 시집을 가르쳤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전도서의 삽화를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정말 매력적인 책이므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간을 갖고 이 놀라운 책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종 구약성서에서 무시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약성서에서 오해를 받는 책입니다. 하지만 매우 관련성이 높은 책입니다. 약 3,000년 전 아주 고대 시대와 매우 다른 맥락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에 관해 다음 몇 시간 동안 일련의 강의를 통해 이 책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 즉 우리가 다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나 모티프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전도서 본문 전반에 걸쳐, 내 의견은 전도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구약의 이 12장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반복되는 주제 모티프와 중요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3,000년 전 현명한 사람 코헬렛(Kohelet)은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있는 삶의 난제 중 일부에 대해 숙고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불의를 보셨고, 의인은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을 보셨으며, 그것을 거꾸로 보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타락한 세상, 인간의 이성에 앞장서는 일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세상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한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 직면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우리 현자는 지혜의 현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을 숙고했습니다. 몇 시간? 그들이 살았던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숙고하고 지혜가 어떤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에 대한 답 전도서는 지혜서이며 구약의 지혜 장르에서 발견됩니다. 기능적인 장르 지혜서는 주로 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에게 친숙할 지혜서에는 잠언, 욥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더 큰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반성 연설과 실례 이야기, 그리고 약간의 자전적 경험을 통해 우리 현자 코헬레트는 그의 세계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헬렛이라는 이름을 언급했고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 때때로 그를 솔로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코헬렛에게는 솔로몬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우리의 주요 인물을 코헬렛으로 언급한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영어 번역에 익숙한 여러분 중 일부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설교자" 또는 "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와 교사는 단순히 히브리어 코헬렛의 번역입니다. Kohelet은 단순히 분사 형태이므로 히브리어 동사 kohal 동사 kohal의 명사 기능을 취합니다. 코홀(Kohol)은 단순히 모이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코헬렛(Kohelet)은 단순히 모으는 사람, 모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연구에서 학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코헬렛이 사람들을 모으거나 모임으로 모으는 사람, 즉 번역 설교자나 교사인지 여부, 또는 코헬렛이 사람들을 모으고 모이는 사람인지 아닌지입니다. 지혜를 모읍니다.

전도서, 특히 7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잠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코헬렛이 어떤 일에 관여하든 그는 확실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모아서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성인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자체에서 그 점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코헬렛을 설교자나 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코헬렛이 솔로몬인지 아닌지입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헬렛과 솔로몬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책 안에는 그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와 함께 전도서에 있는 몇 가지 특정 본문을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인 교사 코헬렛의 말로 시작하는데, 그 서문을 통해 확실히 솔로몬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전도서의 자서전 부분, 특히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코헬렛은 왕족만이 조립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큰 부자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은과 금을 모으고 쌓는다. 코헬렛족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코헬렛족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세상의 신비를 숙고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은 지혜의 렌즈를 통해 지혜로 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그의 지혜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실천한 것에 대해 종종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잠언의 유래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열왕기상 4장에서도 솔로몬이 잠언의 창시자로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정경에도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잠언을 생각해 내는 것은 솔로몬의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을 코헬렛, 저자 또는 적어도 저자의 전도서에 나오는 인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우리가 코헬렛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동일시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과 12절에서 나 교사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이 언급은 과거형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아닌 곳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의 연관성이라면 조금 어색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아마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알림은 전도서 1장과 16절에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 나의 지혜가 더 많아졌고 지혜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부스 왕이나 다른 왕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는 여기서 코헬렛이 복수형으로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린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솔로몬이 코헬렛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해주지는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코헬렛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반대하는 증거보다 더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수년 동안 비판적인 학자들은

솔로몬의 정체성이나 코헬렛의 저자임을 부인해 왔으며,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영국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훨씬 넘어선 기간에도 전도서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내 생각에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책들만큼 특별한 배경이나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들. 우리가 예언 문헌을 연구할 때, 그들의 메시지는 종종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 및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런 종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지정학적, 상황적, 역사적 맥락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정체성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코헬렛을 언급한다면, 나는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Kohelet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책의 특정 부분에서 3인칭으로 언급되고,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나, 코헬레트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 코헬렛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역동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코헬렛의 인물과 전도서의 저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본문의 영감받은 권위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는 어떤 복음서의 저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권위는 반드시 저자와 인물의 동일성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내 생각에는 솔로몬의 삶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몰락과 그의 삶의 경험을 너무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때때로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본문에 대한 역사는 실제로 전도서의 잘못된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전도서에 대한 매우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전도서가 솔로몬의 생애 말기에 간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야훼를 버리고 우상과 거짓 종교를 자신의 경험과 이스라엘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과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이 전도서에 그런 종류의 전기를 삽입하면 실제로는 잘못된 해석적 결론을 낳게 됩니다. 전도서와 본문, 그리고 12장 자체가 전혀 증언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도서 어디에서도 코헬렛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거나 그런 식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나 코헬렛의 저자가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의 어떤 것이 적절하고 옳다고 주장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타락이나 우상 숭배, 심지어 쾌락주의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간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록 성경 12장이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종종 읽혀지지만 말이죠. 다시 한 번, 전도서를 연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 전도서의 구조와 문체에 관한 한 전도서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을 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전도서에서 주식 용어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전도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정 단어에 연관된 의미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연구에서 노출될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hevel* 은 안개 또는 증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 이 단어가 38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코헬렛이 *hev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이해는 전도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토브(tov)와 같은 다른 키워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토브라는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트롬(yitrom) 은 구약성서에서는 흔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전도서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헬렛이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득, 이윤, 잉여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amal, 일 또는 수고.

히브리어 헬렉 (helek) 은 부분, 많은, 할당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나 중요한 모티프를 살펴보면 우리는 특정한 히브리어 단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주석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책의 설명 수준은 아니지만, 학생인 당신에게 전도서의 어떤 중요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전도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에서 다양한 문학 장르를 접하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말하면 지혜의 책이다. 즉, 전도서는 지혜문학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책이다.

지혜문학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신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 모두에서 지혜 문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점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패러다임적이고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게 가져오는 어려움이나 도전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어떻게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잠언서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가 매우 실용적이듯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도서에서 욕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욕기에는 욕기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놓고 씨름하는 일종의 지혜 신정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묵상과 연설, 심지어 속담의 지혜를 통해서도 동일한 질문이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관점에서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도서는 지혜 문학의 전통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말하면 지혜서로서 전도서는 히브리 시의 전형적인 구조적, 문학적 기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도서 7장 10장에서 잠언을 발견합니다. 이 장들에서 거의 전체 장은 잠언의 정경에 있는 잠언 모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위험을 다루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내가 확률론적 지혜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다루는 잠언 모음을 발견합니다. 전도서 4장에는 성도보다 나은 자의 모음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지혜서에는 추가 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후에 이 잠언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것은 속담입니다. 2절에서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땅에 비를 쏟아 붓습니다.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그 쓰러진 곳에는 그대로 있느니라. 일종의 관찰 속담이다.

또는 4절에 보면, 바람을 보는 자는 심지 아니하고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잠언 중 하나입니다. 때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결과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매우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언은 정경 잠언에 나오는 잠언과 똑같지만 여기서는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다른 문학 하위 장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과 2장에서는 자서전적 성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장과 1절, 혹은 4절에서는 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나는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는 무성한 나무들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종과 여종을 샀고, 다른 종들도 우리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또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소와 양 떼를 더 많이 소유했습니다. 은과 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리가 솔로몬과 연관시킬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왕과 지방의 보물을 위해 나는 남자와 여자 가수와 후궁도 얻었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한 진술이지만 솔로몬과 연관시키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도 내 지혜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말하면 자서전적 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장과 13절부터 16절까지에 예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다소 흥미로운 점은 1장과 2장에서 왕족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듯한 자서전적 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 후반부에서는 코헬렛이 그런 종류의 연합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족인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왕족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9장과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시 이야기의 좋은 예를 해 아래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라는 말은 전도서 전체에 걸쳐 자주

반복되는 문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모범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사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거대한 포위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침 그 도시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지혜로 그 도시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잠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조용한 말은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더 유의할 것이니라. 그러나 13절과 16절의 예시적인 이야기는 잠언을 결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서에서 우리는 문학적 유연성의 예를 봅니다. 책에는 우화의 예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12장과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서 노년, 즉 노화 과정이 우화화되거나 확장된 은유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는 텍스트 우화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화는 일종의 은유를 앞으로 확장하는 문학적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 앞에서 별들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비 뒤에 다시 돌아오리니 집 지키는 자들이 떨어져 강한 자들이 구부러지리니 맷돌질하는 자가 적으므로 그치겠고 거리 문이 닫히면 창으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느니라 맷돌 소리도 잦아들고, 새 소리에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모든 노래가 희미해질 것이며, 사람들이 높은 곳과 거리의 위험을 두려워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피어나고 메뚜기가 몸을 끌며 갈 것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코헬렛이 아몬드 나무와 메뚜기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과정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이러한 이미지 중 어떤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은 거리로 돌아다닙니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 금그릇이 깨지기 전, 항아리가 샘 곁에 부서지기 전, 바위가 우물 곁에서 부러지기 전,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누가 준거야.

그래서 여기에 다시 우화의 예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잘 알려진 시 중 하나는 3장과 2절부터 8절까지의 시간에 관한 시입니다. 여기서는 적절한 시간이나 결정된 시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이진법 쌍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계획할 때가 있고 뱉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건축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며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은 독립된 단위입니다.

시입니다. 그 앞과 뒤의 내용은 시에 대한 해설일 수 있지만 시 자체는 독립적인 문학 작품입니다. 전도서에는 우리가 성찰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의 예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반성 연설의 예는 9장에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실제로 이 서문을 보면 그것이 반성 연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1인칭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지 미움이 그를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등 모든 사람은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러하고 죄인이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그러하며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여기에 Kohelet이 자신이 만들어온 특정 관찰에 대해 반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다양한 문학 형식이나 지혜 문학의 기능적 장르 내에서 표준적인 하위 장르를 혼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하위 장르를 더 많이 보고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인 클루시오(inclusio), 일종의 문학적 책 결말, 전도서 내 괄호 안과 같은 다른 구조적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이러한 종류의 괄호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책 전체를 1장과 12장으로 묶습니다.

헤벨 오브 헤벨. 이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놓인 NIV에는 무의미한 의미 없는.

내가 무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Hebel of Hevels는 교사가 완전히 Hebel이든 무의미하든 NIV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시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KJV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Hebel이 우리를 위해 번역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2장과 8절에는 Hebel of Hevels 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무의미한 것은 Kohelet이나 교사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헤벨입니다. 여기서도 1장과 2절에서 문제로 소개된 내용이 반복됩니다. 문학적 책의 결말은 inclusio 라고 불리며, 나중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다른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책 말미에는 에필로그도 있어요. 실제로 Hebel of Hevels 선언 의 백엔드 이후입니다. 12장과 9절에 보면 선생은 현명했을 뿐만 아니라 코헬렛은 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는 3인칭으로 언급되었으며 사람들 에게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잠언을 숙고하고 연구하여 정리했습니다. 7장, 10장, 11장에서 우리는 이 잠언을 발견합니다. 코헬레트는 올바른 단어를 검색하여 찾았으며 그가 쓴 내용은 올바르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전도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강의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것 중 하나는 제가 여기 있는 Kohelet의 렌즈를 통해 본 삶에 대해 매우 낙관적, 즉 현실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책을 해석하는 데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나는 성경의 정경 내에서 그 메시지가 실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이러한 세부 사항의 잡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에필로그 자체가 코헬렛의 말이 올바르고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접근 방식은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의 증언으로 입증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가는 것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굳게 박힌 못과 같은 말을 모아 놓은 것이라. 그 외에 어떤 것이든 내 아들에게 경고하십시오.

잠언 1-9장에 나오는 아들에게 경고하는 교훈적인 대화나 교훈적인 담론을 생각나게 합니다.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는데, 많은 공부의 몸이 어디 있느냐? 이제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은밀한 일을 포함하여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3인칭 에필로그로 마무리되며,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일종의 문학적 결론으로 봅니다. 이제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도서에 대해 취하고 싶은 접근 방식은 주제별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전도서 12장 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호 의존적인 주요 주제에 노출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핵심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 내의 모티프와 그 기능,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전체 메시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전도서 본문을 통해 작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눈에 띄는 모티프에 노출되면서 확실히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론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모티프 중 일부를 요약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를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모티브는 삶의 소중함입니다. 이제야 그게 참 재미있는 단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어 단어 *heve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안개 또는 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음 강의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책 속의 모티브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이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삶의 딜레마를 대표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코헬렛이 직면한 문제이며 그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 참음, 그가 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 그가 하벨 이라고 묘사하는 것, 그가 내리는 판단, 그가 하벨 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가 관찰하는 것,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는 또한 하벨 이라 부른다. 그래서 사물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은 일종의 전도서에서 모티브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서에는 모티프 역할을 하는 몇 가지 관점이 노출됩니다.

하나는 태양 아래서 보는 관점이다. 즉, 코헬렛이 삶을 관찰하는 태양 아래의 관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해 아래의 관점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관점인가? 아니면 단순히 수평적, 인간적 차원, 비계시적 관점인가? 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가 모티브가 된다. 지혜는 삶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관점이다. 우리는 코헬렛이 이 여정을 수행하는 것이 지혜의 렌즈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책 자체는 지혜문학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문학 연구에 적용되는 적절한 해석학적 제안이나 해석학적 규칙을 전도서 연구에 적용할 것입니다. 지혜 자체는 전도서에서 탐구됩니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헤벨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천함, 태양 아래의 관점, 지혜가 모두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에 대한 제한의 부과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모티브가 됩니다. 즉, 코헬렛은 사물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따르는 몇 가지 당혹감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의, 행하심, 신의 활동을 탐구하는 신학적 관점을 다룰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인류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지옥의 세계, 필멸의 존재에서 인류는 심지어 우리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타락,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될 것은 신학적인 실마리나 모티프입니다.

주권자이신 신적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 사이의 연관성. 나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신학적 인류학을 부르고 싶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은 전도서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사실, 책에 약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모티브입니다. 거의 모든 장에서 코헬렛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종말, 죽음에 대해 숙고할 것입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불가피성은 생명의 비천함, 하나님의 주권, 인류에 대한 제한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지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어떤 종류의 보증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전도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즐거움.

사실 전도서 전체를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반성하고 심지어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하고 명령하는 후렴구가 일곱 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전도서의 메시지와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맞이한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겨라. 기회를 잡고, 당신이 가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전도서에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거의 계명이자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종 무시되지만 전도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발견하는 것은 12장 13절과 14절의 결론 부분에서만 아닙니다. 우리는 3장과 17절에서 발견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 12장 1절을 읽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좋아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하는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제로 삶의 즐거움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서 내에서 이러한 모티프의 상호 의존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티프의 서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전도서에 실제로 두 가지 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면 동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그들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주시는 묵은 붙잡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인생을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행한 일을 창조주께 언젠가 보답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길 뿐만 아니라 죄도 즐기지 않습니다. 현명한 남자나 현명한 여자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며 언젠가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 보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는 전도서의 메시지보다 오늘날 더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어떤 책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운 삶.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냉철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내리는 결정, 당신이 수행하는 삶의 모든 단계의 매일이 이런 종류의 지혜 패러다임에 의해 지시되고 구성되도록 허용하세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용적이며, 우리는 이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전도서 메시지의 실용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도서의 보물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이 글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이 당신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삶의 무거움에 대한 개념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는 전도서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갔지? 아, 40분이에요. 좋아요, 그거 꽤 좋아요. 나는 좀 확신할 수 없었다.

제가 실험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블라인드를 2피트 정도 내릴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냥 눈부심이 좀 있었을 뿐이야.

네, 그리고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좋은.

괜찮은. 응, 좀 쉬고 싶어? 응, 좀 쉬자. 우리 여기 몇 시예요? 11시 정각.

좋아요, 내 전화기에서 분명히 발생한 일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도 그 소리를 죽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화기를 꺼내겠습니다.